

한강 “문학 읽고 쓰는 것, 생명 파괴 모든 행위 반대하는 일”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다.”

한강 작가는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노벨상 시상식 직후 시청사 블루홀로 이동해 연회에 참석했다. 연회는 노벨상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진행되는 노벨 주간 의 하이라이트 행사로 꼽힌다.

검은색 트레스 차림의 한강 작가는 특유의 차분한 어조와 침착한 모습으로 미리 준비해온 영어 소감을 낭독했다. 특히 광주의 참상과 비극을 그린 '소년이 온다'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사태 등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라는 문학사적 의미 외에도 비상계엄사태로 큰 충격에 빠진 한국에 전하는 위로이자 '감동의 선물'로 평가된다.

이날 연회는 한편의 클래식 공연처럼 진행됐다. 스웨덴의 대표 싱어송라이터인 띠래의 무대

스웨덴 노벨문학상 시상식·연회 현 시국에 대한 위로 '감동의 선물' 노벨주간 방송 '소년이 온다' 언급

를 비롯해 전문 댄스그룹의 공연 등도 펼쳐졌으며, 1200여 명 참석자들의 서빙을 위해 약 130여 명이 투입됐다.

노벨주간 방송사 SVT는 연회 과정을 생중계 했으며 중간중간 수상자들의 인터뷰, 주요 작품, 연구 성과 등을 소개했다.

한강에 대해서는 '(과거)정권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한 방송은 "1980년 작가의 고향 광주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살이 발생했다"며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당시 학살이 소설을 규정짓고 출발점이 됐다"고



한강

이자 소설가인 엘렌 마스온은 "친애하는(Dear) 한강! 스웨덴 한림원을 대표해 따뜻한 축하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국왕페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작가를 호명했다.

언급했다.

연회에 앞서 노벨상 시상식은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약 1시간 여에 걸쳐 진행됐다. 한강은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한림원 총신위원이자 소설가인 엘렌 마스온은 "친애하는(Dear) 한강! 스웨덴 한림원을 대표해 따뜻한 축하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국왕페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작가를 호명했다.

한강은 콘서트홀에 모인 청중의 박수를 받으며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한강이 받은 메달은 앞면에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얼굴이, 뒷면에는 한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학상 수상자 증서는 다른 부문 수상자들의 것과는 달리 양피지로 제작됐다.

올해 문학상 증서에는 '스웨덴 한림원'(SVENSKA AKADEMIEN)과 알프레드 노벨의 이름 아래 한강의 영문 이름이 특별한 서체의 금색으로 새겨졌다. 지난해 문학상을 받은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의 증서와 같은 양식으로 삽화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에게 메달을 수여한 이후에는 영국 여성 오보에 연주자 겸 작곡가 루스 깁스가 작곡한 '암바르발리아'가 연주되기도 했다.

한강의 작품세계를 설명한 엘렌 마스온은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눈(雪)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 보호막을 긁는 역할을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면서 "빨간색은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붉은색과 흰색은 작가가 소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다루는 역사적 경험을 상징한다"며 "인물들은 때때로 본인이 보고 목격하는 것으로 인해 좌절하기도 하며 때면 마음의 평화가 무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 작가는 12일 현지 번역가 대담 등을 끝으로 노벨 주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강에게 메달을 수여한 이후에는 영국 여성 오보에 연주자 겸 작곡가 루스 깁스가 작곡한 '암바르발리아'가 연주되기도 했다.

한강의 작품세계를 설명한 엘렌 마스온은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눈(雪)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 보호막을 긁는 역할을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면서 "빨간색은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붉은색과 흰색은 작가가 소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다루는 역사적 경험을 상징한다"며 "인물들은 때때로 본인이 보고 목격하는 것으로 인해 좌절하기도 하며 때면 마음의 평화가 무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 작가는 12일 현지 번역가 대담 등을 끝으로 노벨 주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낭송·강연 '광주에서 온 편지' 벽찬 감동

광주시, 시민홀서 축하 행사

11일 새벽 0시 45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되자 광주 시민들은 '한강'을 연호했다.

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시민 축하행사 '광주에서 온 편지: 밤 12시 한강 작가에게 편지를 쓰세요'를 10일 오후 8시부터 11일 새벽 1시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진행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현장에는 일반 시민을 포함해 문학단체, 오월단체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신형철 문학평론가의 강연 '한강의 작품 세계'로 시작한 행사는 시민 축하메시지 상영으로 이어졌다.

'한강 작가에게 쓰는 편지' 이벤트도 펼쳐졌다. 시민들이 즉석에서 편지를 쓰면 광주시가 이를 모아 책자 형태로 엮어 작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남에서 광주로 달려온 김중현(60) 씨는 "우려전정과 국내 계업 시국으로 인해 각종 행사마저 소박하게 치러달라는 한강 작가님의 생각이 빛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문학'이 전 인류의 마음에 가닿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오른다"고 했다.

광주문인협회는 5·18을 모티브로 창작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시극 형태로 선보였다. 이어 슬롯컴퍼니는 한강 작가가 작사·작곡한 노래들을 들려줬다. 2005년 '채식주의자'를 집필하



11일 새벽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에서 온 편지' 행사에서 강경희 광주시장과 슬롯컴퍼니가 GOD '촛불 하나'를 부르고 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면서 한강 작가가 노랫말을 붙인 '새벽의 노래'를 비롯해 인터뷰에서 언급되며 화제를 모았던 악무(AKMU) 곡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했어, 널 사랑하는거지'도 레퍼토리에 있었다.

수상을 기념하는 샌드아트리스트 주홍의 샌드아트 영상도 인상적이었다. 극단 신명은 모노드라마를 통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드러난 5·18의 고통을 몸의 언어로 묘사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노벨문학상 시상식도 생중계됐다. 한림원이 새벽 0시

45분께 '한강'을 호명하자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수상의 감동은 시청 내벽에 AI로 구현된 '동호' 이미지가 이어 받았다. 문재학 열사를 모티브로 창작된 소설 '소년이 온다' 속 주인공 동호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라이브 애니메이션으로 한강에게 축하 메시지를 건넸다.

"소년이 온다"는 한강 작가와 소년 동호가 같이 쓴 작품"이라는 AI 동호의 목소리는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역시 한강...국민들에 한줄기 빛으로 희망 될 것"

전남도, 한승원 문학관 환호

"역시 한강", "최고" 등 짧고 굵은 메시지가 한승원 문학관에 울려 퍼지며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문학의 고장 '문림 장흥'이 모처럼 활기가 돌며 들썩였다. 10일 밤 11시 30분, 안양면 읍산마을 한승원 문학관은 스웨덴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마을 주민들로 북받았다. 주민들은 약주를 마시다가 시상식 중계가 시작되자 강당에 모이 들었다.

장흥은 고(故) 송기숙 소설가와 고(故) 이경준 소설가를 비롯해 한승원, 이승우, 위선환, 이대홍 등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펼쳐온 문인들의 태자리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철학자 존재 위백규는 호남을 대표하는 실학자이자 문인으로 손꼽힌다.

또한 한강 작가의 부친 한승원 소설가의 고향으로, 한강은 아버지의 '문학적 DNA'를 토대로 자신만의 창작세계를 열었다. 한강 작가는 "한밤중에 글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는 말로 자신의 문학적 여정이 부친의 영향력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말하곤 했다.

이날 시상식 생중계 화면을 통해 한강 작가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주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감탄사를 쏟아냈다.

한림원이 부문별 수상자를 호명하고 네 번째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을 호명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주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1일 장흥군 한승원 문학관에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주민들과 함께 시청하며 박수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들은 자신의 아들딸이 큰 상을 받은 것처럼 즐거워하며 환호를 했다. 한승원 소설가는 당초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주민들과 시상식을 축하하기 위해 한승원 문학관을 직접 찾았다. 김지사는 현수막 속 한강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주민들과 기쁨을 나눴다.

김지사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한강 작가는 작품을 통해 폭력과

억압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상황일수록 희망을 가져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희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홍식 읍산마을 이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마을과 국가의 경사라며 "우리 마을과 한국을 빛내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선도해줄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정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m³/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설비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평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염기제 (Nexchl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달러,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8 중소기업부정당금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율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법제표 표창

Home 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견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재민 공고)

주식회사 태승(이하 '양도인'갑)이라한다)과 주식회사 경민(이하 '양수인'을이라한다)는 2024년 12월 6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영업 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무는 "을"이 승계하고, 상환 채500조의의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은 본 공고게 익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분할합병대상: 정보통신공사업(610434)
2024년 12월 12일

갑(양도인) 주식회사 태승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로37번길 48(양산동)
대표이사 손영섭

을(양수인) 주식회사 경민(양도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17번길 50, 2층(만용동)
사내이사 이현상

72년을 밝혀 호남인민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북 구	• 통 권 266-1920 • 문 총 266-1960	• 북 광 525-3761 • 신 양 222-8171
중 구	• 양 산 571-7698 • 오 지 266-7801	• 용 통 433-1503 • 동 신 433-1503
남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동 양 222-9054
서 구	• 동 명 671-7276	
광 산 구	• 광 천 382-5788 • 상 목 372-2352	• 서 경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지 행 376-6511 • 통 양 603-0311	
	• 화 정 369-1625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